



# 藥街 漫筆

顧問 李 麟 星



## 1話 ; 許之然後에

崔訓長이 모처럼 시간을 내어 弱해진 몸의 건강을 상담하고자 친구인 姜醫員을 찾아 나섰다가 우연히 노상에서 팔도강산을 유람하며 호걸선비를 찾고 있다는 妓香이라는 妓女가 길을 묻는 바람에 만났다. 八等身の 미모인 妓香이를 보자마자 흠뻑 반해버린 崔訓長은 자기도 세상구경을 다니기가 평생소원 이었는데 동행하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수작을 부리니 기향이 간드러지게 눈웃음을 치더니만 좋다고 응낙한다.

崔訓長, 옳다구나 하고 여비도 마련할 겸 잠깐 들를 곳이 있다하고 姜醫員을 찾아가 自初至終 이야기를 하고 여비를 부탁한다. 이에 姜醫員이 힐끔 기향을 보니 천하의 절색이라 그도 그만 혼이 빠져 자기도 동행하겠다고 자청하고 따라 나서게 되었다.

짐을 꾸려 희희낙락 정담을 나누면서 지루한 줄 모르고 몇 십리를 걸었는데 걷다보니 이미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걸치는데 여관은 물론, 인가도 보이지 않아 산 속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노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다가 보니 저쪽 산자락에 불빛이 보이느니라 '되었다' 하고 걸음을 재촉하여 찾아드니 작은 암자였다. 이젠 되었구나 하고 큰기침을 하고 주지스님을 찾았더니 한참 뒤에야 나타난 주지스님은 재워 줄 수 없다고 딱 거절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사정하여도 기녀가 끼인 당신 네 일행에게 청정도량을 내 줄 수 없

다는 태도였다. 캄캄한 하늘에는 비바람이 몰아오니 이리지도 저리지도 할 수 없었다. 돈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내놓겠다고 하여도 요지부동이던 스님이 한참이나 일행을 이리 저리 살펴보다가 한 가지 조건을 내 놓는다.

“우리 절은 여관이 아니니 돈은 필요 없오이다. 부처님께 시주하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이나 그렇다고 재워 줄 수는 없소이다. 다만 한가지 제안을 하지요 내가 내어놓는 詩句에 對句로 통과하는 분에 한해서는 유숙을 허락하겠지만 對句하지 못하는 분은 아무 말 않고 돌아가는 조건인데 그렇게 하겠소이까?”

스님의 속셈은 기향을 재워 줄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수가 없는지라 ‘그렇게 하겠다’ 하고 문제 詩句를 청하였다. 스님이 기향을 힐끗 보더니만 큰 소리로 문제시를 읊조린다.

♠ 스님, 天有天眞佛하고 地有地藏菩薩하며 吾寺에 有百萬羅漢이라 金氏 求福이라도 許之하고, 朴氏求福이라도 許之하되 許之然後에 福不福은 吾不關焉이라.

(하늘에는 천진불이란 부처님이 있고 땅에는 지장보살이란 보살이 있으며 우리 절에는 백만이나 되는 나한들이 계시는데 김씨가 와서 복을 주시오 하여도 가져라 하고, 박씨가 와서 복을 주시오 하여도 가져라 하겠지만 허락한 뒤에 가져가고 가져가지 않는 것은 나는 관계하지 않겠노라)

이에 崔訓長은 그런 정도라면 문제없다고 즉각 對句하였다.

♠ 崔訓長; 天有天文하고 地有地理하며 吾之書室에 有萬卷書籍이라 金氏 求學이라도 許之하고 朴氏求學이라도 許之하되 許之然後에 學不學은 吾不關焉이라.

(하늘에는 천문이 있고 땅에는 지리가 있으며 우리 서실에는 만권서적이 가득하여 김씨가 배움을 청하여도 허락하고 박씨가 배움을 청하여도 허락하겠지만 허락한 뒤에 배우고 배우지 않는 것은 나는 관계하지 않겠노라)

스님이 ‘종소 당신은 통과요 안으로 들어오시오. 다음은 뉘요?’  
이에 姜醫員이 눈을 깜박이다가 바로 對句한다.

♠ 姜醫員 ; 天有天門冬하고 地有地骨皮하며 吾之藥室에 有數百藥草이라 金氏求藥이라도 許之하고, 朴氏求藥이라도 許之하되 許之然後에 藥不藥은 吾不關焉이라.

(하늘에는 천문동이 있고 땅에는 지골피가 있으며 우리 약방에는 수백 가지 약초가 있어서 김씨가 약을 주시오 하여도 줄 것이고 박씨가 약을 주시오 하여도 주겠지만 약을 먹고 나서 약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나는 관계하지 않겠노라)

스님이 ‘당신도 통과요 안으로 드시오’ 하고 나서 기향이 너는 못 지을 것이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는 표정으로 ‘이젠 당신 차례요’ 하였다. 이에 한참이나 다소곳하고 있던 기향이 ‘잘은 못지오오만 저도 약간의 배움이 있으니 지어 보지요’ 하고 마지못해 하는 듯 對句한다.

♠ 妓香 ; 天有天池하고 地有地池하며 吾之腰下에 有○<sup>10</sup>池니라 金氏請之라도 許之하고, 朴氏請之라도 許之로되 許之然後에 參不參은 吾不關焉이라.

(하늘에는 하늘 못이 있고, 땅에는 땅의 못이 있으며, 나의 허

10) ○은 보배寶字

리아래에는 ○지가 있는지라 김씨가 칭하여도 그러해라 하고,  
박씨가 칭하여도 그러해라 허락하겠지만 허락한 뒤에 갖고 갖  
지 않는 것은 나는 관계하지 않겠노라)

스님이 감탄하고 ‘당신도 통과요’하고 나서 천하의 문장들이 우리 절에 드  
셨다고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자신의 실례를 사과하였다.

## 2話 ; 月月山山커던...

혼쫄난 세 사람이 잠은 오지 않고 출출한데 술 한 잔도 없고 하니 무료하  
기 짝이 없는지라 기향이의 고운 노래라도 들어봄 직하지만 부처님을 모신 절  
간에서 고성방가를 할 수도 없게 되자 崔訓長이 말하기를 ‘이 밤을 이렇게 무  
료하게 지낼 수 없으니 이런 저런 이야기라도 합시다. 하니 모두 좋다고 하였  
다.

먼저 崔訓長이 입을 연다.

“내가 먼저 가난에 얽힌 이야기를 하지요” 하더니만 이야기를 꺼낸다.

李선비는 유명한 학자였다. 천하문장이었지만 10년간이나 과거를 보느라고  
가세가 기울어져 곤궁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운이 없어서인지 배경이 없어서  
인지 번번이 낙방하다보니 물려받은 재산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여비도 없어  
과거도 포기하고 있는 처지였다. 비 오는 날에는 방안에는 낙숫물 소리가 요  
란하여 빗물과 싸워야 하였고 하루 세끼 먹는 것은 옛날의 이야기였다. 마누  
라가 샴바느질로 겨우 하루 한 끼 풀칠한지가 오래 되었다.

그래도 양반의 체통은 살아 있는지라 찬 물먹고 이 쭈시고 뱃속에서 쪼르  
룩 노래가 들려도 큰기침으로 품위를 지키고자 하였다.

어느 날 죽마고우인 김선비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김선비도 가난하기는 마  
찬가지여서 한 끼니 얻어먹을 요량으로 찾아든 것이었다. 반갑게 손을 잡고

그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끼니때가 훌쩍 넘었다. 두 사람의 뱃속에서는 야단난 지 오래 되었다. 이선비는 친구가 그만 돌아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김선비는 따뜻한 한 끼 밥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처지였지만 내실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떠다놓은 냉수만 훌쩍훌쩍 마시다보니 냉수도 바닥이 났다.

안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사랑방 손님이 가기를 그리도 기다리지만 가지 않는지라 죽 한 그릇이 다 퍼져 가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어 하녀가 가만가만 나오더니 사랑채에 대고 손님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한다고 한마디 아뢰는 말,

“人良이요”

이 선비 듣고도 아무 말도 없자 하녀 다시 한번 “人良이요” 한다. 한참이나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던 이선비 한숨을 쉬고 나서 하녀에게 하는 말,

“月月 山山커던”

하녀는 아무 말 없이 물러가고 한참이나 침묵이 흘러갔다. 말을 한 이선비나 이 말을 들은 김선비 모두가 기가 막혔다. 한 끼 식사 얻어먹을까 하였던 김선비 한끼 밥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꽤썸하다는 듯 한마디 내뱉었다.

“丁口 竹天(夭)이로구나” 하더니 도포를 퍼덕이며 인사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휘여휘여 사라져 갔다.

이 선비 눈물을 닦고 나서 하녀가 가져온 밥상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시래기죽에 보리밥알 몇 알 들어있는가 없는가 하는 죽 그릇을 내 팽개쳐 버렸다.

“친구야 미안하다이”

이때 이선비 뱃속에서는 우랑 통탕 난리가 나고 있었다.

최훈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기향이가 물었다. “대체 그 무슨 암호 같은 말들이요?”

최훈장 “자 들어보시오 바로 이러한 말이요”

人良은 人+良=食.(밥이요)

月月은 月+月=朋. 山山은 山+山=出 (벗이 가거든)

丁口竹天(天)은 丁+口=可. 竹+天(天)=笑. (가히 <추잡하게>웃기는군)

※ 笑字는 원래 竹변에 夭를 하지만 보통 하늘天字로도 통한다

### 3話 ; 毛深內闊하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姜醫員이 기향이의 잘 다듬어진 몸매를 힐끔 쳐다보더니 장난기 있는 한마디를 던진다.

“毛深內闊하니 必過他人이리라...”(털이 깊고 안이 넓으니 반듯이 다른 사람들이 지나 갔겠구나...)

글쎄나 하는 기향이 이를 못 알아들을 이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히죽 웃고 당당하게 對句한다.

“前園黃栗은 不蜂之開요 溪邊楊柳는 不雨之長”이거늘... (전원의 누런 밤은 벌이 오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열어지고, 시냇가의 버드나무는 비가 오지 아니하여도 자라거늘...) 이 무슨 수작이냐는 투다.

세 사람이 모두 박장대소하였다.

최훈장 한바탕 웃고 나더니

“절간만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는 꼭 술이 있어야 하는데 안되었다”고하자 기향이 맞받는다. “술이란 百害無益인걸 어이 그리 술을 찾으시오.” 강의원이 손을 휘휘 저으며 “술이란 참 좋은 것이요 술이 없는 세상을 생각이나 해 보셨오 藥性歌에도 小則通血脈이요 過則 損命이라고 하였지만 술이란 過보단 實이 더 많으니 들어보시오” 하더니 술의 禮讚論을 편다.

“郊天禮廟에 非酒不饗이요 (하늘과 사당에 제사 모실 때에도 술이 아니면 올리지 못하고) 君臣朋友에 非酒不美요 (임금과 신하, 친구끼리도 술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을 것이고) 鬪爭相和에 非酒不勸이라(싸우고 난 뒤에 화해하기 위해서도 술이 아니면 권할 것이 없다) 하였잖소.”

이번에는 崔訓長이 不可論으로 對答한다

戒爾勿嗜酒이니 (너에게 이르나니 술을 즐겨하지 말라)

能移謹厚性이라 (능히 근후한 성품이 없어진다)

狂藥非佳味이니 (미치는 약이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니)

化爲凶險類니라 (변화하여 흉험한 성품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기향이 호호 웃고 결론을 내린다.

“술이란 때에 따라 좋기도 나쁘기도 하니 泛飲만은 하지 마십시오”

#### 4話 ; 大敗 白血流

이어 기향이 말을 잇는다.

“두 분 선생은 倭<sup>11)</sup>國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그 추국을 침벌하여 승리 하였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두 사람이 의아하여 보라 보자 기향이 말을 잇는다. ‘그러면 그 전쟁 상황을 들어보시지요’

♣ 력<sup>12)</sup>將軍이 大怒하여 欲伐倭國이어늘 左右 襄丞相이 諫曰 倭國이 雖 小나 毛兵이 三千이요 內有角石之將軍이라 不可忽易擊也니 勿 伐하오소서 력將軍이 不聽하고 卽侵倭國하여 或進 或退로 總 力激戰터니 吐白血而死러라.

(력장군이 추국이 오만불순하며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추국을 치기로 하는지라 왼쪽 오른쪽 두 주머니 승상들이 만류하기를 추국이 비록 협소하다하나 터 력군사가 삼천이나 되고 안에는 각석의 장군이 지키고 있는지

11) 추국의 추자는 원래 尸안에 脣을 넣은字로 워드에 없는 字이기에 脣로 代用한 것임

12) 력장군의 력字는 門안에 力을 넣은 字이지만 워드에 없기에 력字로 대용한 것임

라 가볍게 칠일이 아닙니다 치지 마오소서 하고 간하였지만  
력장군 듣지 않고 곧바로 추국으로 진격하여 일진일퇴로 격전  
하였으나 마침내 패하고 흰 피를 흘리고 죽더라)

지금까지 추국을 侵入하여 살아남은 자 없으니 대체 추국이 어디 인지나  
아십니까?

姜醫員이 빙그레 웃고 대답한다.

“추국이 어디인지는 모르오나 半月城인가 합니다. 반월성 역시 침벌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다하니 들어보시려오?”

♠ 無骨將軍이 毛軍을 引率하고 半月城에 侵入 激戰타가 大敗 白血流러라.

崔訓長이 웃더니만 말을 받는다.

“나도 추국이나 반월성은 모르오만 그 戰爭이 얼마나 激烈하였던지 옛사  
람이 詩한수를 남겼는데 들어보시려오?”

♠ 無風天地에 一禽動이요 不雨江山에 兩岸沾이라

(천지에 바람이 없건 만은 한 이불이 움직이네. 강산에 비가 오지 않건  
만은 두 언덕이 더했구나)

기향이 깔깔 웃고 말한다.

“추국도 모른다하고 반월성도 모른다하니 양안첨도 내 모르겠소. 우리 모  
두 모르는걸 알려하지 마십시다”



## 5話 二日二時

강의원이 말을 다시 잇는다.

“二日二時가 무슨 말인지 아시오” 두 사람이 고개를 갸웃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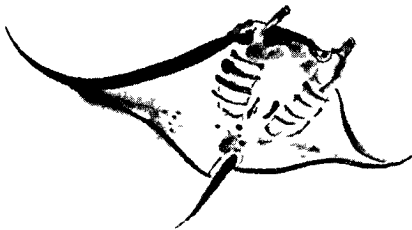
“내 이야기를 하나 더 하리다”

미스 김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姜總角이 있었다. 身言書判이 뚜렷하고 언행이 청산유수요 빨간 넥타이가 어떻게나 어울리는지 한번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총각 이였지만 너무나 엄격하여 수년이 지났지만 사랑한다 말 한마디 붙일 수가 없었다. 그 앞에만 가면 오금이 저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어데 가서 사랑을 고백 할 길이 있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하고 몇 달이나 망설이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연서 한 장을 보내기로 하고 정성 드려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마침내 속달우편으로 보냈는데 내용인즉,

♠ 「國無城 月入門이면 二日二時」요.

(나라에 성이 없고 달이 문에 들었으니 이틀하고 두시라)



강총각이 이 뜻을 알 수 있을까. 무슨 답서가 올까 미스 김은 무척이나 가슴을 조이며 기다렸다. 답서가 없으면 어찌할까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탔다.

강총각도 며칠을 두고 이 뜻을 알아내려고 끙끙대다가 드디어 답서를 보냈는데 그 답서에는 글자는 하나도 없고 동그라니 바다에 사는 가오리 한 마리 그림 이였다.

“이 오고 간 편지한번으로 두 사람은 가까워져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니 대단한 편지가 아닙니까? 자! 암호를 풀어보시오.”

崔訓長은 금방 알아 차렸지만 기향은 고개를 가웃 뚱하며 해석을 해달란다.

나라國자에서 성口이 없어졌으니 或字가 되었고, 달이 문에 들었으니 한가 閒字가 되었으며, 하루는 24時니 二日이면 48時요 여기에 2時를 보태면 50時가 아닌가.

뜻인 즉, “或 한가하시면 오십시오”의 뜻이 되었고, 물고기인 가오리는 가오리다(가겠습시다)의 뜻이었으니 이리해서 이들은 부부가 되었다는 것.

## 6話 ; 長城一目

崔訓長이 다시 입을 연다 “高次元的인 이야기를 하나 더하지요”한다

전라도 장성에 가면 「長安萬目이 不如長城一目」이라는 조선조 6大 哲人의 한 분인 蘆沙 奇正鎭에 대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노사선생은 전북 순창 출신 이였지만 長城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장성을 빛낸 인물로 존경받고 있으며 지금도 高山書院이라는 서원에서 해마다 祭를 올리고 있는 大思想家이다.

선생은 애꾸눈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선생의 조부께서 「黃鸚啄目」(황앵탁목)이라는 명당에 선영을 모셨는데 지관이 말하기를 「눈먼 손자 하나 얻으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태어난 손자 가 눈이 멀쩡한지라 낙담하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아기가 울면서 한 눈이 부어오르고 고름이 나는지라 식구들이 놀래어 우왕좌왕 하는데 유독 조부만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하고 좋아하였는데 그 뒤 애꾸눈이 되었다는 것이다. 선생은 대문장가로 공조판서까지 올랐고 그 뒤 여러 벼슬이 주어졌으나 사양하고 낙향하여 학문연구에 평생을 지냈는데 마지막에 가의대부가 주어 졌다.

1859년경에 중국에서 온 사신이 조정대신들에게 하나의 글을 내놓고 짝을 맞추라고 하였는데 그 글인즉, 「龍短虎長」 「五更樓下 夕陽紅」이란 글이었다.

「용이 짧고 호랑이가 길다」 「깊은 밤중 누각아래 석양이 붉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 이었다

조정대신들이 답을 얻지 못하여 찢찢 매다가 마지막으로 장성에 있는 애꾸눈에게 물어 보기로 하고 보내졌고 이에 노사선생은 명쾌하게 해결하여 냈으니 그 해석은 이러하였다.

「龍短虎長」은 해(日)를 가리키는 말로 해가 辰(龍)方에서 뜰 때는 겨울이 짧고, 호랑이(寅) 方向에서 뜰 때는 여름으로 길다는 뜻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對句하였다.

「畫圓書方」(그림으로 그리면 둥글고 글씨로 쓰면 네모난다)으로 하고, 「五更樓下 夕陽紅」은 오경루를 固有名詞로 보아 「九月山中 春草綠」(구월산 가운데 봄풀이 푸르구나)이라고 對句하니 사신이 무릎을 치고 조선에도 이러한 문장이 있느냐고 감탄하였는데 이에 조정대신들이 「長安萬目이 不如長城一目」(서울의 수많은 눈이 장성의 눈 하나만 못하다)이라고 하였는데 이로부터 장성은 「선비의 고향」 「文不如長城」이라는 名聲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 7話 ; 勿犯罪惡

姜醫員이 한숨을 쉬더니 하는 말,

“오늘밤 우리가 잠소리인지 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소. 나도 평생을 약방선생이랍시고 많은 고통 받는 환자를 대하여 왔지만 생각하면 그중 半쯤도 나누어 주지 못한 것 같아 항상 죄를 지고 사는 것 같아 가시방석에 살아온 기분이었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옛날 나의 은사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속에 숨쉬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妓香이 ‘그 선생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姜醫員이 말을 잇는다.

“내가 어렸을 때 은사인 張선생에게서 「孟子」를 배우고 있던 중, 韓醫學을 배우려고 장선생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는 경찰 간부로 있는 선생의 장남과 승席하게 되었는데.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지요

‘예로부터 약방을 하는 사람과 권력층에 있는(경찰) 사람에게 하나의 경구가 있으니 그것은 죄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작건 크건 권력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등쳐먹는 경찰이나, 쉽게 나올 수 있는 병을 빨리 나수어 주지 않고 질질 끌면서 돈을 울겨먹는 의원이라면 이는 큰 죄악이다. 전해 내려오는 말로 이런 사이비 경찰이나 부도덕한 약업을 하는 사람은 반듯이 자기가 벌을 받지 않으면 후손이 그 벌을 받는다 하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느냐.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고,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을 낫게 하여 주는 것이 약방의 의무인데 이러한 사명을 저버린 데서야 어찌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복이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냐, 명심 명심하여라. 훗날 약방선생이 되면 좋은 일 많이 하여 음덕을 많이 많이 쌓도록 하여라’ 하는 가르침 이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환자를 대해 왔고 그래서 죄 짓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여 왔지만 약을 먹고도 낫지 않는 환자를 보면 또 죄를 짓는구나 하는 의식이 가슴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 뒤 10여년이 흘러 내가 작은 약방을 차리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그 선생님이 학발을 쓰다듬으며 어려운 발걸음으로 찾아오신 날 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바둑에 미쳐 5급이네 4급이네 하면서 친구들과 바둑을 열심히 즐기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광경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찾아와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때 이였었지요.

친구들이 돌아간 뒤 선생이 크게 나를 나무랐습니다.

“네가 도대체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를 나수겠다는 것이냐 바둑선수가 되어 바둑대회에라도 나가겠다는 것이냐. 사람마다 다 제 본분이 있는 것을 너는 본분을 잃고 셋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니 너는 너무나 큰 죄를 짓는구나,

부지런히 연구하고 어진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여도 부족하거든 이따위 빛나간 행동으로 본업을 망각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이렇게 무성의하게 환자를 대하여거든 당장 약방을 집어치우고 바둑으로 전업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보지 아니했는데 고안 지고 ..” 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것이었다. 나는 얼마나 식은땀이 흘렀는지 등골이 오싹하는 전율을 느끼고 바로 바둑판을 버리고 지금까지 다시 잡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때 그 선생님의 호통소리를 잊을 수가 없소이다. 하늘의 호령을 들어 볼까요 ”

복더위 폭염 속에 떡장구름 뒤덮더니  
푸른 칼로 후려치고 동이물을 퍼 붓는다  
천지를 개벽하려는가 우릉광광 혼을 빼네.

번개 칼이 번쩍이면 사람마다 바로 선다  
행여나 지나간 날 죄 된 행위 없었던가  
가슴이 두근박거린다 쥐구멍을 찾고 있네

우리 쥐구멍 찾는 일이란 하지 맙시다.

## 8話 ; 本業復歸

강의원의 이 말에 모두가 숙연하였다  
기향이 훌적훌적 하더니 처연하게 말한다.

“가세가 빈궁하여 妓門에 들었으나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가슴만 더 저려 오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이 더욱 아픕니다. 좌를 짓고 안 짓고는 어찌 약방선생이나 경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생각하여보면 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업이 하늘에 닿았을 것입니다. 내 팔도강산 유람을 한답

시고 이렇게 나온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말을 들어보려는 방편이기도 하였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유람이고 무어고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로 밤 가는 줄도 몰랐는데 스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비는 개이고 동방에 햇살이 비추어 오는데 스님은 일장훈계를 한다.

“천하의 문장이라고 대우를 하였더니 그대 밤을 새워 한다는 이야기가 시정잡배들이 지껄이는 잡소리만 하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각기 본업이 있는 것이니 훈장이면 부지런히 실력을 길러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 본업이요, 약방을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인술 업이거늘 한시 반시 헛된 시간 허비하지 말고 만권의서를 정독하여 병 나수는 공부로 밤을 새는 것이 본업일 것이며, 기생이라면 창녀가 되지 말고 가무에도 서예에도 능해야하고 논개나 황진이 같이 굳은 절개로 양반을 깨우는 꽃으로서 본업이 있어야 하거늘 헛되이 훈장을 유혹하고 약방선생을 헛된 길로 끌어내는 등 본업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으니 모두가 옳지 않다. 마지막 말을 듣고 보니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은 듯하니 헛된 유람일랑 집어치우고 본디의 본업으로 돌아들 가시오” 하는지라 모두 부끄러워짐을 챙겨 허둥지둥 절간을 나왔다.

崔訓長도 이제 姜醫員에게 健康相談하러 나왔었다는 것을 다시 알고 나서 잠시나마 妓香이에게 이끌려 예까지 왔었다는 사실에 히히 웃고 모두 본업으로 돌아갔다더라.

(장성 사거리 한약방)